

보도해명자료 (‘15. 7. 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석탄발전보다 2배 비싼 ‘LNG 발전 늘린다”,
“정부온실가스 감축계획, 급전순서 변경 발전원가
증가 전기요금인상 불가피”(‘15.7.16, 머니투데이)

1. 보도내용(요지)

- 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NG(액화천연가스) 발전을 석탄발전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임
 - 산업부는 여러 대응방안중의 하나로 급전(전력공급) 순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 - 현재 ‘원자력→석탄→LNG→열병합 및 중유발전소’ 순으로 이뤄진 급전순서에서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위치를 바꾸는 내용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현재 급전순위는 발전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되는 경제급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
 - 정부는 인위적으로 급전순위를 제한하는 등의 경제급전원칙 변경을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,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음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 장(044-203-5260)
송영상 사무관(044-203-5262)